



미 증시, 관망심리 짙어지며 소폭 하락

미국 증시 리뷰

17 일(월) 미국 증시는 클라리다 부의장 등 연준 위원들의 완화적 발언, 미국 내 백신 접종 확대 소식에도, 인플레이션 우려 미해소 속 19 일(수) FOMC 의사록 발표를 앞두고 관망심리가 심화됨에 따라 하락 마감(다우 -0.2%, S&P500 -0.3%, 나스닥 -0.4%).

테슬라(-2.2%) CEO 머스크의 비트코인 처분 논란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세를 연출했다는 점도 위험자산 선호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업종별로는 에너지(+2.3%), 소재(+0.9%) 등 경기 민감주들이 강세를 보인 반면, 커뮤니케이션(-0.9%), 기술(-0.7%) 등 언택트, 성장주들은 약세를 보이는 등 차별화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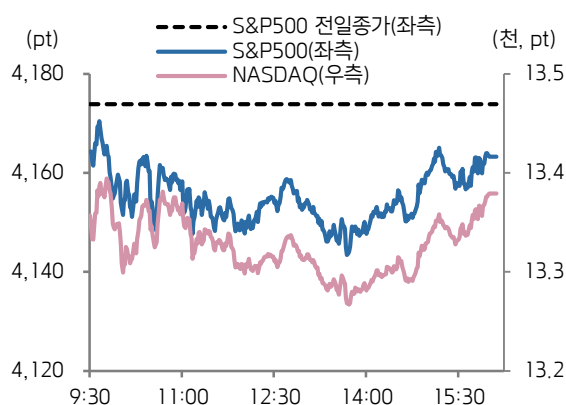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은 인플레이션 급등은 일시적이겠지만, 그것이 강해질 경우 연준은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 동시에 추후 테이퍼링을 단행하더라도 사전적으로 시장에 경고를 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시장 달래기성 발언을 재차 하였으나, 증시에는 별 다른 영향을 주지 못함.

미국 증시 평가

지난주 이후 강도는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는 상황. 전일 발표된 앰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내 가격지불지수(74.5→83.5)가 사상최초치를 경신했다는 점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기업들의 원활한 가격 전가 여부 및 구매자들의 수용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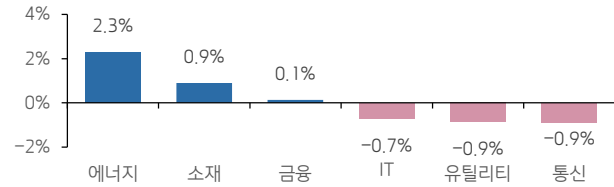
따라서 인플레이션 노이즈 장세가 지속되는 만큼, 금주 예정된 4 월 FOMC 의사록에서의 문구 변화, 여타 주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 내 사용 단어의 변화에 시장 반응이 민감해질 가능성에 유의. 또한 지수 레벨 부담감이 높아진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발 불편한 기간 조정에 피로도가 높아짐에 따라 실망 매물이 출회될 지 여부도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할 포인트.

S&P500 일중 차트(5월 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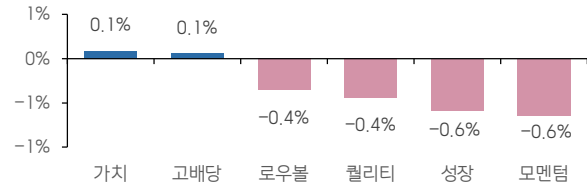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5월 17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5월 17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87%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09%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06%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36.5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인플레이션 노이즈 장세 진입으로 일중 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 지속 가능성 2. 대만증시 폭락 충격이 지속적으로 국내 증시에 전이될 지 여부 3. 철강, 바이오 등 최근 단기 주도주 역할을 했던 업종들의 추가 가격 조정 여부

한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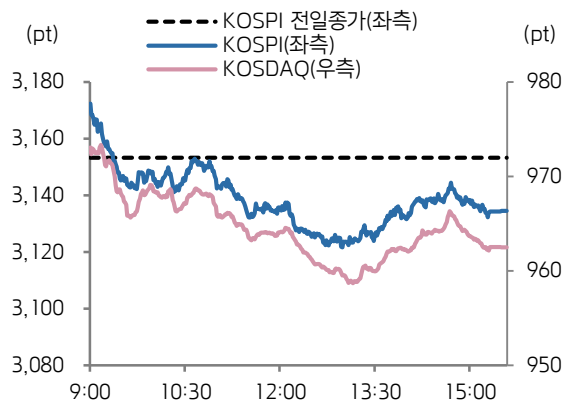
17 일(월) 한국 증시는 장 초반 미국발 경기 과열 우려 진정에 힘입어 상승 출발 했으나, 이후 일본, 대만 등 여타 아시아 주요국 증시 약세, 원/달러 환율 상승 부담 등으로 하락 전환함과 동시에 장중 변동성도 확대됨에 따라 하락 마감(코스피 -0.6%, 코스닥 -0.4%).

중국의 4 월 소매판매 부진(+17.7%YoY, 예상 +4.9%)으로 인민은행의 긴축 우려가 완화했다는 점이 중국 증시 뿐 아니라 국내 증시에도 한 때 긍정적 영향을 가했으나, 일본과 대만의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IT 산업 공급 충격 우려를 부각시켰다는 점이 하방 압력을 가함. 삼성바이오로직스(-7.8%), POSCO(-3.4%) 등 최근 단기 주도주 역할 했던 일부 대형주들이 재료 소멸 인식으로 급락했다는 점도 지수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

한국 증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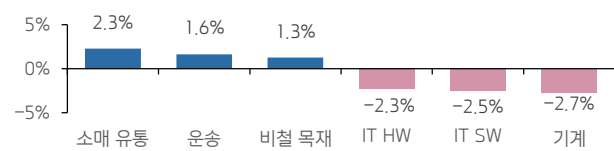
한국 증시는 금주 대형 이벤트(FOMC 의사록, 한미 반도체 회의 등)를 앞둔 관망심리 속 대만 등 아시아 지역 내 코로나 발 공급 불안에 영향을 받으면서 눈치보기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현재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잇따른 봉쇄조치 완화로 경제 정상화 기대가 높아진 반면, 아시아, 신흥국에서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경기 회복 및 주요 부품 공급 지연 우려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 특히 한국과 산업구조가 유사한 대만에서는 지난 주말 신규확진자가 400 명대로 급증. 정부에서는 봉쇄조치 강도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 다만, 해당 이슈는 지난주부터 반영되어 왔던 악재이기 때문에, 금일 국내 증시에서는 제한적인 영향을 가할 것.

KOSPI & KOSDAQ 일중 차트(5월 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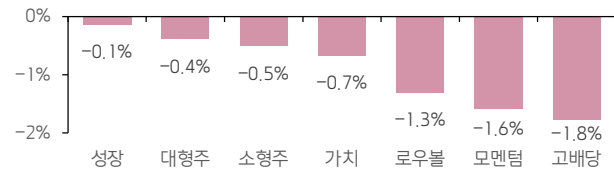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5월 17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5월 17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류,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